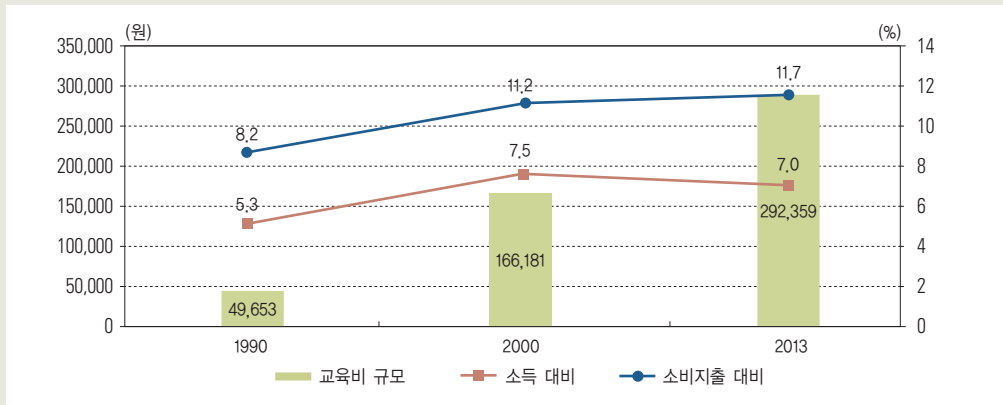


이슈

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에 대한 개선책 필요

- 지난 23년간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
 -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만 8,133원에서 420만 3,326원으로 4.5배 증가했으나, 교육비는 동 기간 5.9배 증가
 -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비중은 1990년 5.3%에서 2013년 7.0%로 증가, 소비 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1990년 8.2%에서 2013년 11.7%로 확대

▶ 도시 2인 이상 가구 교육비 지출(명목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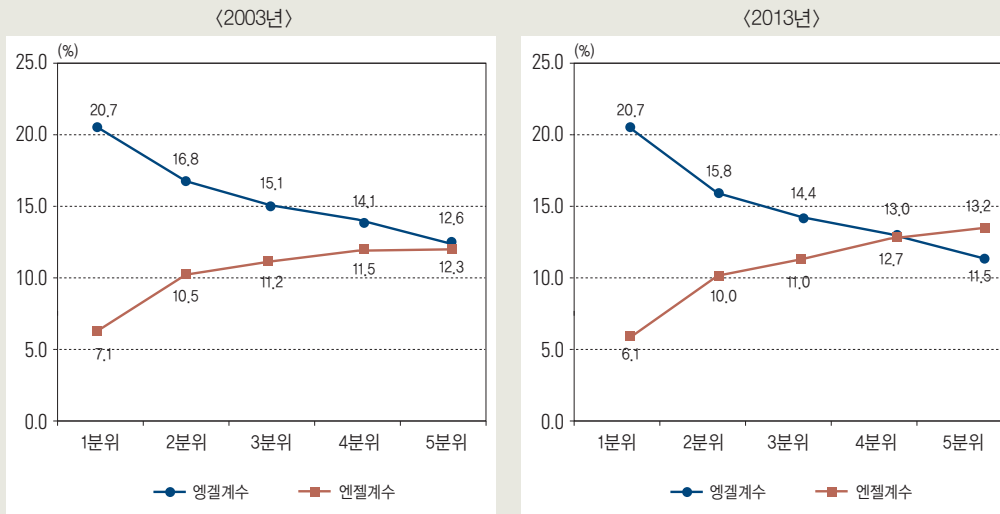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「가계동향조사(각 연도)」, Meta, 통계청

주: 1990년과 2000년의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통계청에 의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자료만 제공되어 2013년도의 경우도 도시 2인 이상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.

- 우리나라 가구의 월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이 높은 상황
 - 우리나라 가구의 엔겔계수와 엔젤계수를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두 계수 간의 차이가 극명
 -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 지출의 비용이 높은 '엔겔의 법칙'이 작용하는 데 기인
 - 반면, 소득이 높을수록 엔겔계수와 엔젤계수의 차이가 적게 나는 가운데 특히 소득 5분위의 경우 엔젤계수가 더 높게 기록
 - *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접하는 등 소득 계층별 교육격차 발생을 의미

▶ 소득수준별 잉겔계수와 엔젤계수 비교(명목기준)



자료: 「가계동향조사(2013)」 Meta 재구성, 통계청

주: 1) 2인 가구 이상

2) 잉겔계수는 총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

3) 엔젤계수는 총가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

- 또한, 2003년과 2013년의 지난 10년간 가계 소비지출액을 비교해 보면,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 잉겔계수와 엔젤계수의 차이가 좁아지는 양상

* 가계 교육비 지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최상위 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중·하위 소득계층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

- 특히 중산층의 경우, 사교육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등 고소득층에 비해 교육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

- 2013년 기준 월평균 소득 600만~7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84.8%로 가장 높았으며, 월평균 소득 500만~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82.5%로 소득 최상위계층 가구(83.5%)와 비슷한 수준

- 중산층의 사교육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

- 엔젤계수 증가가 보여주는 과중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 마련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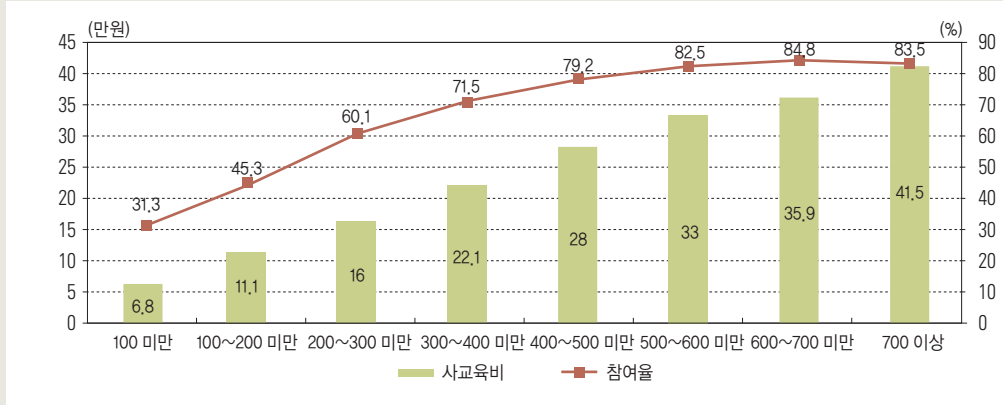
- 단기적으로 학원비 책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시행에 중점을 둔 정책 마련 필요

- 중장기적으로는 초·중·고 과정에서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

- 공교육 경쟁력 확보 향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필요

-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주요 과목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사 확충 및 예산배정, 수준별 수업 구성을 통해

▶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(2013)



자료 : 「사교육비 조사(2013)」, 통계청

내실화 방안 등 다양한 대책 수립 필요

- 현재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, 고품질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교육 흡수

▶ 작성 : 박지혜(서비스산업연구실 연구원, 02-3299-2932)